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

“아니, 왜 7,000원을 주는 거지?”

국민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짝꿍의 금색 샤프펜슬이 부러웠던 나는 매번 하갯길에 문방구점에 들러 주인 할머니께 이미 수차례 물어본 금색 샤프펜슬의 가격을 몇 번이나 되묻곤 했다. 몇 번이나 되물어도 주인 할머니는 싫은 내색 없이 7,000원이라고 말해주며 도리어 옆에 있던 알사탕을 하나씩 쥐여 주셨다. 한 달 용돈이 5,000원이었던 나에게 7,000원이란 가격은 너무 부담스러워, 금색 샤프펜슬 옆에 있던 검은색 투박한 샤프펜슬에 한동안 만족하고 살아야 했다.

그러다 설날 연휴 때 할머니가 주신 만 원을 들고 기어코 금색 샤프펜슬을 사기 위해 문방구점으로 향했고, 꼬깃꼬깃하게 접힌 만 원과 금색 샤프펜슬 상자를 드디어 맞바꾸었다.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아 나왔는데, 무심코 손바닥을 펼쳐보니 3,000원이어야 하는 거스름돈이 7,000원이었다. 이미 문방구점 문을 닫고 나왔고 이대로 집으로 향하면 주인 할머니는 모르실 상황이었다. 주인 할머니가 주시던 알사탕을 떠올리면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지만, 한 달 용돈 5,000원이었던 나에게 그 상황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다. 결국 나는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지 못했고, 다시는 주인 할머니가 쥐여 주는 알사탕을 맛보지 못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이후에 다시 그 문방구점 앞을 지나갔지만, 주인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쪽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꽤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고, 이 무거움이 바로 양심과 청렴의 무게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거스름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한순간에 양심을 저버렸던 여덟 살의 ‘나’와 달리 나의 부모님은 늘 정직을 철칙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오셨다. 특히 아버지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으셨다. 그리

고 오랫동안 자재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셔서, 자기네 물건을 써 달라고 부탁하려는 삼촌들이 집으로 자주 찾아왔던 기억이 난다. 삼촌들은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셨는데 아버지는 그것들을 절대 집으로 들인 적이 없었다. 삼촌들의 손에 들린 물건이 '○○제과 종합선물세트'였을 때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께 조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대신 아버지는 삼촌들의 손을 이끌고 나가면서 "마. 이런 거 고마 갖고 온나. 갖고 와도 나는 못 받는데이. 집에 느그 아나 갖다 주라. 소주나 한 고뿌 하고 가라"라고 하셨고, 그런 날마다 아버지는 술에 거나하게 취하셔서 웃음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술주정을 부리셨다.

"마, 내가 가진 건 읊어도 자존심도 읊나. 읊이 살아도 사람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기라. 니도 똑똑히 들으래이.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 알아듣겠나?"

그땐 아버지의 술주정이 싫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아버지의 웃음이 바로 정직과 정의의 대가(代價)였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삼촌들의 손에 들려 있던 물건들을 되돌려보내는 아버지를 만류하지 않은 어머니 덕분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없이 사는 살림이었지만 쪼개고 또 쪼개어 정말 알뜰히도 살림을 꾸리셨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스승의 날이 될 때마다 담임 선생님 선물로 양말 세 켤레가 가지런히 포장된 선물 박스를 내 손에 들려 보내셨다. 그리고 선물 박스 안에는 늘 흰색 봉투도 함께 있었는데, 그 속엔 장문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한글을 완전히 깨우친 후에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본 편지에는 아들을 많이 꾸짖어 달라는, 버릇이 없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우리 아들을 잘 봐 달라는 말은 한 줄도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삶으로 보여 주셨던 가치대로 나는 정직하고 우직하게 노력을 했고, 다행히 부모님의 바람대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신명 나게 학교생활을 했으며, 아이들 앞에 늘 당당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처음으로 담임 교사를 맡았을 때는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제2의 부모가 된 것처럼 생활했는데, 어느 날 한 남학생이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다.

며칠 후 그 아이의 아버지와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끝내고 나서 보니 그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 옆에 무거운 나무 상자와 흰 봉투가 담긴 종이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그 나무 상자가 '○○년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위스키 상자라는 것과 그 흰 봉투가 나의 어머니께서 양말 박스 안에 넣어 보내시던 손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초임 교사로서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릴 적 문방구점에서 있었던 달콤한 유혹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주인 할머니가 주시던 알사탕을 또다시 배반할 수는 없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곧바로 주차장으로 달려 나갔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전화상으로만 지루한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선물을 주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그 뜻을 쉽게 굽히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의 실랑이 끝에 다음 날 그 아버지께서 다시 학교로 오셨고 그제야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내 뜻을 받아들였다.

다시는 국민학교 앞 문방구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예전과 달리,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너무나 다행이었다. 한편으로는 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놓고 갔을 때는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애당초 빈손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부모님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는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

아이들을 통해 담임 교사의 의사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나니, 대부분의 부모님이 나의 방침에 따라 주셨다. 대신에 나는 신학기만 되면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를 수없이 외쳐야만 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를 외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물론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과 상처가 있기도 했다. 모든 교사가 그동안 부정청탁을 받아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듯한 느낌이 들어 약간의 상처가 되기도 했고, 아이들이 주는 캔커피 하나, 사탕 하나까지도 자기 검열해야 한다는 점이 너무나 삭막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의 어머니께서 내 손에 들려 보내시던 양말 세 켤레마저도 부정청탁의 허울을 덮어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결론은 어머니께서 양말 세 켤레에 실어 보낸 마음은 순수한 의미였더라도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 통념상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일지라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상대방에게는 그 성의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캔커피 정도의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추후 내적 갈등의 상황에 처한다면 상대방은 그 캔커피의 기억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교육 현장은 많은 것이 변화했다. 이제 더 이상 학기 초마다 담임 교사가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를 외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부모들은 따뜻한 마음만 갖고 학교에 찾아오신다.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캔커피나 꽃 한 송이가 없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는 몇 년이 흐르더라도 서랍 속 상자에 고이 보관할 정도로, 글로 전한 마음은 상대방에게 향기로 남는 법이다. 꽃 한 송이에 담긴 향기는 꽃이 시들

면 그만이지만, 글로 전해진 향기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다. 단,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화려한 장식이 붙은 편지였다면, 4년 전부터는 흰 바탕의 복사 용지에 더 빼곡하게 마음을 채운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꽤 오랜만에 서랍을 열고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어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